

# 담화 전략으로서 조사 교육 연구 — ‘의’를 중심으로

양세희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 수료

- \* 이 논문은 제55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3.12.7.)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머리말
- II. 관형격 조사 '의'의 통사·의미적 기능
- III. 담화 전략으로서 '의'의 기능
- IV. 담화 전략으로서 '의'의 교육 방안
- V. 맺음말

## I. 머리말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언어가 근본적으로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총체적 언어(whole language) 교육의 대두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문법 교육에서도 일어났다. 담화<sup>1</sup>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법 교육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을 문장 단위를 넘어서서 담화 단위에서 제시하기도 하고, 읽기나 쓰기 교육과 통합하여 구성되기도 하였다. 문장 이상을 넘지 못할 것만 같았던 품사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다. 초등학교에서는 국어사전을 찾으며 주요 품사를 변별하도록 지도하고, 중학교에서는 품사별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

1 담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는 담화를 문장 이상의 단위로 보기도 하고,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언어 사용으로 보기도 하며, 담화를 발화(utterance)나 언어 행위(speech act)로 보기도 한다. 사실 이 정의들은 경계선이 분명한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담화를 문장 이상의 단위이면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된 언어로 규정하고자 한다. 담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신현숙(1997), 임규홍(2007), 전영옥(2009)을 참조.

담화 상황을 이용하기도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일상생활에 매우 필요한 표기법과 관련하여 단어의 형태 변화를 가르치기도 한다. 과거에 문법을 복잡한 체계로서 분석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이고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지난한 과제였음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 보인다.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문법은 국어에 내재해 있는 원리와 규칙일 뿐만 아니라 언어활동에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저 지식 체계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법은 국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어를 통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124). 그렇다면 문법은 학습자의 사고 속에서 정적(靜的)인 지식의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국어를 사용할 때 필요에 따라 기저에 있는 문법 지식이 여러 조합의 모습을 띠고 작동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문법 지식을 학습자가 기저에서 어떻게 이끌어 내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못했었던 듯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법 교육에서 문법 지식을 ‘전략’<sup>2</sup>으로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문법 교육의 풍성한 담론들 속에서 어휘 선택이나 주제화, 어순 배열 등 담화 전략이라고 불릴 만한 논의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국어에서 통사적 또는 의미적으로 조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조사가 담화 전략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란 가정을 충분히 세워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사 ‘의’를 대상으로 담화 전략으로서 어떻게 교육할

---

2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사용 영역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교육 내용으로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전략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기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전략은 애매성(fussy)을 포함하는 의사 결정의 논리이고, 기능은 알고리즘적(algorithmic) 연산 규칙이 지배적인 문제 해결의 논리이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663-664). 기능, 전략, 능력에 대한 개념을 비교한 것은 천경록(1995)을 참조. 담화 전략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술할 예정이다.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 II. 관형격 조사 ‘의’의 통사·의미적 기능

조사 ‘의’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되어 왔다. 먼저 ‘의’를 격 범주로서 설정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김민수(1970), 성광수(1972), 김영희(1973) 등이 있다.<sup>3</sup> 둘째는 생성문법의 바탕 위에서 ‘의’의 문법적 기능에 주목하여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서정수(1968), 김봉모(1979) 등을 들 수 있는데, 주격 ‘가’와의 관계에서 심층과 표층의 문제로 주로 논의하였다. 셋째는 ‘의’의 분포에 따라 의미를 밝힌 것으로, 대표적으로 김광해(1981)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심층구조상에 설정될 수 있는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의’가 지닌 어휘적 의미에 동일시함으로써 ‘의’의 의미를 분류하고 기술해 온 종래의 방법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의 분포 상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의’가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환경과 제로화(zero化)되는 환경에서의 ‘의’의 통사적, 의미적 기능을 기술하였다.

학교 문법에서 조사 ‘의’는 관형격 조사라고 명명하고, 체언과 결합하여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도록 관계를 만들어 주는 기능을 가진 품사로서 제시되고 있다.<sup>4</sup> ‘의’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결합하여 명사구를

3 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의’의 격을 인정할 수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격에 대한 국내의 여러 학자들의 정의는 성광수(1972) 참조.

4 이관규(1999: 294-300)에 의하면, 통사론 차원에서 격을 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문장을 선형적으로 파악하는 방법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 학교 문법은 전자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서술어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관형격의 경우에는 서술어의 역할이 전혀 무시되고 있다. 후자의 방법은 구조격과 의미격을 설정하는 방법인데, 구조격 설정에서 역시 관형격은 논란이 되어 왔다. 그리하여 앞 체언이 뒤 체언에 소속되는 내포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형격 조사를 내포 접속 조사로

만드는 통사적 기능을 가지는데, 이때 앞에 오는 명사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므로 학교 문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관형격 조사로서 ‘의’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의’에 의해 결합된 관형 구성에서는 ‘의’에 의해 앞의 성분이 뒤에 오는 성분을 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하에서는 일반적인 관형 구성을 가리키기 위해 선행 명사, 후행 명사라 말하고, 앞의 성분을 N1, 뒤의 성분을 N2라고 표시하겠다). 이러한 ‘의’의 기능을 김기복(1997: 63)에서는 ‘의’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하였다. 우리말 통사 구조에서 N1이 직접 N2를 수식함을 불허하는 경우에 관형격 조사 ‘의’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의’의 이러한 기능으로 말미암아 ‘의’는 무한한 ‘좌분지 구문(left-branching construction)’을 생성할 수 있다.

한편, 학교 문법에서는 ‘의’가 가지는 의미적 기능에는 통사적 기능에 비해 덜 관심 가졌던 듯하다. 그러나 ‘의’가 지니는 의미적 기능은 ‘의’가 연결하는 명사들의 종류만큼이나 앞의 명사와 뒤의 명사가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보통은 심층 구조상의 어떤 동사류를 가정하여 ‘의’의 의미를 파악해 낸다. 그런데 김광해(1981)에서는 ‘의’의 분포를 통해 ‘의’가 출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과 필수적으로 출현해야 하는 환경을 추출하였다. N1과 N2가 명시적인 항목연결성(collocability)을 지니고 있는 관계인가 아닌가에 따라 ‘의’의 출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그 환경만이 달라질 뿐이지 ‘의’의 의미는 서로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였다. 즉, ‘의’(또는 {Ø})는 N2가 N1의 범위 속에서 어떤 관계하에 있음을 표시해 주는 의미 기능을 지닌다는 것이다. 변정민(2008: 528)에서는 김광해(1981)에서 언급한 ‘의’의 의미의 모호성 때문에 문맥에서 실현된 ‘의’는 ‘의’의 본유적 의미라 하기 힘들다고 하였다.<sup>5</sup> 또한 김기혁(1990: 87)에서 역시 ‘의’가 지나치게 많은 의미로

명명하였다.

- 5 변정민(2008)에서도 김광해(1981)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의 실현 유무에 따라 관형구성의 유형을 밝혔는데, 김광해(1981)보다 정치하지는 않지만 ‘의’의 실현이 필수적인 경우를 비유 관계 외에도 대표성과 관용성을 갖는 표현을 찾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

해석이 되는 것은 조사 ‘의’가 기능적 의미를 가진 기능 조사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N1과 N2의 의미 관계가 중의적이기 때문에 ‘의’가 생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sup>6</sup> 최경봉(1995)에서는 관형 구성의 구성 성분들이 집합 관계를 이루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논항관계 관형 구성과 집합 관계 관형 구성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서술성 명사의 의미 특성에 의해 관형 구성의 의미역 관계가 결정되는 구성이며, 후자는 ‘의’의 생략이나 삽입 양상이 구성 성분의 의미 특성이나 의미 관계와 관련되는 구성이라 하였다. 이들 논의를 통해 ‘의’의 의미 기능은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짐으로써 발생한다기보다는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관계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sup>7</sup>

---

리고 이러한 의미적 측면을 논의할 때에는 ‘의’가 갖는 의미적 기능에 주목하고 있어 ‘의’ 자체의 의미 기능을 설정한 논의들과 함께 다룰 수도 있다.

- 6 김기혁(1990)에서는 ‘의’를 종속적 연결어미로서 의미와 기능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하용(1983)에서 ‘의’를 이음토씨로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관규(1992)에서도 ‘의’를 내포 연결로 보았다.
- 7 김광혜(1981)를 중심으로 ‘의’의 의미를 간단하게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분적으로는 변정민(2008)에서 가져와서 재구성하였다.

(1) ‘의’의 실현이 수의적인 경우

① 소유주-피소유주, ② 전체-부분, ③ 친족 관계

(2) ‘의’의 실현이 필수적인 경우

(ㄱ) 형태, 통사적 측면

- ① 뒤의 NP 전체를 수식하거나 앞의 NP 전체를 받는 경우
- ② 조사들과 결합한 경우
- ③ 주어적 속격의 경우
- ④ 명사가 후행하는 수량 구문

(ㄴ) 의미적 측면

- ① 비유성
- ② 대표성
- ③ 관용성

김광혜(1981)에서는 ‘의’의 실현이 필수적인 경우를 의미 자질이 [+Common, -Count, ±Abstract]인 명사가 N1과 N2 어느 위치든 올 때, N1(고유 명사) + N2(불가양성 소유) 일 때, N1과 N2가 ‘전체-부분’의 기능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를 더 설정하였다. 그런데

그런데 조사 ‘의’ 자체의 의미적 기능을 설정하여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와의 관계를 따지는 논의들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보다 화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명희(1987)에서는 동일구조상에서 동일 요소들의 배합이 ‘의’의 개입 여부에 따라 그 뜻을 달리한다는 것은 바로 ‘의’가 어떤 의미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된다고 하였다. 이남순(1998)에서는 ‘의’에 의한 두 체언의 한정 관계를 선택한정, 부분한정, 부정한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임홍빈(1998)에서도 화용론적 관점에서 ‘의’를 존재에 대한 [전제]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박호관(2001)에서는 속격 명사구는 ‘의’가 유표적이든 무표적이든 [전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의’는 유표적일 때에는 [명시]의 의미를 지니며 무표적일 때에는 [지정]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한정환(2012)에서는 ‘의’의 의미를 ‘가’의 교체 제약을 이용하여 밝혔는데, [+명사구 종속접속조사]적 특징과 [+특정성]의 자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의’에 의해 결합된 관형 구성은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관계에 따라 많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발견하고 유형화하는 것은 조사 ‘의’를 교육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조사 ‘의’에 대한 교육적 가치는 오히려 ‘의’를 담화 전략으로서 접근할 때 언어지리라 본다. 조사 ‘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학습자의 언어생활에서 문법 교육

---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의’가 zero화 된다면 그것은 통사적 복합어로 처리한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면, 꼭 ‘의’의 실현이 필수적인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차례대로 ‘토끼의 재롱’, ‘톨스토이의 소설’에 대응하는 예들이다.

외출을 포기했다. 그리고 개 훈련이랍시고 "일어나! 앉아!"를 외쳐댔지만 실은 똥똥이 재롱에 훈련이고 뭐고 해 가는 줄 몰랐다. 똥 잘못해서 야단치면 기가……[좋은생각, 좋은생각, 2000](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2009년 톨스토이 소설을 직접 각색한 <안나 카레리나>를 연출해 도스키 어워즈에서 최우수 연출상을 수상했다.[국립극장 미르, 문화산책, 2012]

게다가 첫 번째의 경우에는 ‘승리의 여왕, 이별의 부산향’ 등과 같이 ‘비유성’을 갖는 예들이 섞여 있었다.



의 결과가 교육적 효과로서 발현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담화 전략으로서 ‘의’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의’가 의미적 기능을 갖는다는 논의에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즉,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관계에 따라 ‘의’가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관계에 따라 ‘의’의 의미적 기능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논리보다는, ‘의’가 의미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 III. 담화 전략으로서 ‘의’의 기능

#### 1. 담화 전략으로서 문법 규칙

인간은 특정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개인적인 주장을 피력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친교를 위해 말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담화를 주고받는다. 화자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황 맥락과 청자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때 화자는 담화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청자 역시 화자가 사용한 전략을 이해할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다.<sup>8</sup>

담화에서 메시지를 산출하는 화자는 청자가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표현의 형태나 구조를 선택하고 배

---

8 그동안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 또는 필자가 사용하는 전략은 말하기나 쓰기에서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등의 언어 사용에서 한정되어 논의된 감이 없지 않다. 전략은 “잠정적으로 언어 처리 과정에서 언어처리자가 취하는 조직적인 계획과 처리 방법”(노명완 외, 1988)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법 규칙을 활용하는 것 역시 담화 전략으로서 가능하다고 보고 담화 전략으로서 ‘의’를 제안하는 것이다.

열한다.<sup>9</sup> 그러므로 담화는 어떤 명제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제에 대한 화자의 해석을 표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다시 말하면 화자가 만들어 낸 통사 구조적 차이는 곧 의미적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그러므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법 규칙을 활용하는 것 역시 담화 전략으로서 가능하다. van Dijk & Kintsch(1983)에서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지적 과정으로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법적 전략을 언급하면서 전략과 규칙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였다. 언어 자료에 대한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면서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 문법적 규칙을 이용하여 정확한 구조와 의미를 바로잡는 행위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언어 사용자의 스키마는 규칙의 기반이 된다. 이 문법적 전략은 담화 전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문장을 생산하고 이해하는 것은 보다 크고 높은 차원의 담화적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다. 역으로 담화의 의미적, 화용적 해석은 입력물(input)로서 문장 차원의 정보를 포함한다.<sup>12</sup>

문법적 규칙을 담화 전략으로서 사용하는 예는 초점, 지시, 생략, 대응, 직시, 시제, 부정(정희자, 2008) 등을 찾아볼 수 있는데, 국어에서는 조사의

9 화자가 담화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담화 전략을 세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정희자(1996: 22)에서 제시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메시지의 내용을 결정하고 담화 모형(discourse mode)을 결정한 후에 효율적인 정보 전달과 전달된 정보의 명료한 이해를 위한 담화 전략을 세우는데, 선택된 담화 전략에 따라 어순 배열을 한다는 것이다.

10 이러한 화용론적 개념은 여러 담화 분석가들에게 지지되었는데, 일례로 ‘지시’에 대한 주장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Strawson(1950: 326)은 “‘지시’란 표현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행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Lyons(1977: 177)는 “지시하는 사람은 화자이다. 즉, 그는 지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지시 표현을 운용한다.”고 하였다.

11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란 어휘나 문장 단위의 형식적, 구조적인 의미가 아니라 언어 표현이 특정한 상황이나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관련되면서 갖게 되는 의미를 말한다. 여러 학자들의 의미 구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최호철(2011: 508-509) 참조.

12 인지적 과정으로서 담화를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전략들의 특징 중 하나는 위계적이란 점이다.

활용이 담화 전략으로서 문법 규칙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논의들에서 문법 규칙을 담화 전략으로서 사용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는 의미는 종래의 의미론에서의 문장이 아니라 맥락을 배경으로 하는 담화이다. 또한 화자는 지각과 인지능력을 통해 얻은 정보에 가장 적절한 언어 표현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화자의 관점이나 해석 등이 포함되어 표상된다. 이는 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담화 전략으로서 조사 ‘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가 포함된 문장을 넘어서서 담화 전체를 통해서 맥락을 배경으로 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담화 전체를 통해서 필자의 관점이나 심리를 추론할 수 있게 되면 담화 전략으로서 ‘의’의 기능을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다.<sup>13</sup>

## 2. ‘의’의 담화 전략적 기능

앞서서 조사 ‘의’의 분포에 의한 의미적 기능을 부정하고, ‘의’ 자체의 의미적 기능을 받아들여 그 의미적 기능 때문에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는 전제로 출발하였다. 이제 이를 다시 바꾸어 말하면,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 사이에서 ‘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적 기능을 맥락에 따라 필자가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 ‘의’는 필자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언어적 표현으로서 선택한 것이다. 이는 ‘의’의 불확실성 때문에 담화 속에서 풍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의미는 문맥이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일정한 의미적 기능 때문에 필자가 담화 속에서 풍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의미는 필자가 의도를 가지고 정

---

13 이하에서는 주로 글을 통해 담화 전략으로서 ‘의’를 살펴볼 것이므로 ‘필자’에 한해서 설명한다.

하는 것이다.<sup>14</sup>

그러므로 담화 전략으로서 ‘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필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상정해 보면 (1)과 같다.<sup>15</sup>

(1)

- ㄱ. 명사구 관형 구성에서 ‘의’의 실현이 수의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경우
- ㄴ. 명사구 관형 구성에서 N1 자리에 어떤 명사가 올지 선택해야 하는 경우
- ㄷ. 주격이나 대격을 속격의 형태로 바꾸었을 때 의미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 각각의 경우에 담화 전략으로서 ‘의’가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담화 자료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 1) 화자의 일정한 의도 표현

‘의도’는 주체의 능동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표현을 성립시키는 하나의 요소이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594). 그러므로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언어 표현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먼저 (1)에서 (ㄱ)의 경우는 일정한 계층을 형성한 관계로서 현실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관계여서 ‘의’라는 특별한 통사장치에 의해 관계 지을 필

---

14 ‘의’와 관련해서 문장 밖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연구자들 역시 주목한 바 있다(김광해, 1981; 이남순, 1998; 임흥빈, 1998 등). Ramstedt(1939: 42)가 지적했듯이 속격의 통사적 기능은 다음 명사의 종속부(Attribute)가 되는 것이고 서술어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속격이 서술어와의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속격이 문장 밖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이남순, 1998: 66). 그런데 이 연구들 모두 담화와의 관계 속에서 살피지는 못했다. 문장 밖의 영향을 밝히려면 실제 발화 상황이 어떠한지를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하며 글의 경우에는 전체 담화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15 ‘의’가 기본적인 분포를 보여 준 주 7을 바탕으로 하였다.

요가 없이 공기(co-occur)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의’가 생략되는 경우이다 (김광혜, 1981: 36-41). 현실 세계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언중들이 이미 알고 있는 관계이고, 따라서 굳이 ‘의’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의’를 쓴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김명희(1987: 257)에서는 화맥상에서 ‘의’ 앞의 명사가 강조 내지 구체화되는 것이라 하였다.<sup>16</sup> 그런데 ‘어머니 손’이라고 했을 때와 ‘어머니의 손’이라고 했을 때 후자의 경우만 구체적인 어머니를 가리킨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화자가 ‘어머니’를 강조하거나 초점화하려 했다는 것은 가정으로서 충분히 세워 볼 수 있다.

한편, 이남순(1998)에서는 ‘순이의 구두’를 선택한정으로, ‘순이 구두’를 부분한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속격구성에서 의미 초점을 받게 되면, 부분한정의 경우는 선행 명사에 프로미넌스가 높이고 선택한정의 경우에는 후행 명사에 프로미넌스가 놓인다고 하였다. 그런데 김기혁(1990)의 경우는 다르다. ‘커피의 맛’의 경우 ‘맛’이 새로운 정보가 될 수도, ‘커피’가 새로운 정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17</sup>

다음 (2)를 통해 조사 ‘의’가 선행 명사를 초점화할 수도 있고(7의 예)

16 구체화 기능과 구별하여 ‘의’가 일반화 기능을 가진다고도 하였는데, 여기에는 비유성을 나타낸단든지 관용적 표현들이 있기도 하여 일반화 기능이라고 범주화하기가 모호해 보이기도 하며, ‘우리 거복선 / 우리**의** 거복선, 한국 김치 / 한국**의** 김치’의 경우에는 구체화 기능과 어떻게 다른지 불분명해 보인다.

17 설명 방식이 다르지만 의미의 초점이 어디에 놓이냐는 문제로서,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견해들이다.

‘순이의 구두’는 ‘순이의 무엇’이 예쁜가에 대한 진술인 반면, ‘순이 구두’는 ‘누구 구두’가 예쁜가에 대한 진술이다(이남순, 1998: 73).

이 커피의 무엇이 좋냐? / 이 ‘커피**의** 맛’이 좋다.

이 과자는 어떤 맛이냐? / 이 과자는 ‘커피**의** 맛’이다.(김기혁, 1990: 88)

그런데 이들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문장 단위에서 제시하고 있어 알맞은 근거로서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언어 사용자마다 언어에 대한 직관이 다르고 문장 단위는 직관에 의해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후행 명사를 초점화할 수 있다(ㄴ의 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ㄱ. 현동이란 무엇인가? 천지는 도가 마련한 등지이고 만물은 그 등지에 있는 새끼나 같다. 한배의 새끼들은 모두 형제가 아닌가! 현동은 어머니의 품안과 같고 어머니의 손길과 같다. 그래서 노자는 도를 어머니라고 비유했고 그 어머니의 품안을 덕의 손길이라고 했다.[윤재근, 2004, 노자3 크고 싶다면 먼저 작게 하라]

ㄴ. 눈앞이 캄캄해진 나는 몇 발짝 뒷걸음질 치다 그만 하수구에 한쪽 발을 빠뜨리고 말았다. 그런 내 모습이 정육점 아주머니 눈에 띄었나 보다.

“아이구, 운전병이 이등병이네!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군대 갔는데……. 괜 참아요. 얼마 부서지지도 않았는데 뭘.”

하시며 내 어깨를 다독거려 주셨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집 생각이 떠날 날 없던 그때, 그 난처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이리라. 아주머니의 배려로 일은 잘 마무리됐고, 선임하사님이 대신 운전하셨다.[좋은생각, 좋은생각, 2000]

관형 구성의 특성상 (ㄱ)은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를 한정해 주면서 후행 명사를 초점화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런데 (ㄴ)은 필자가 다독거려 주시는 아주머니의 손길에서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는 부분으로서 여기에서는 ‘어머니’의 의미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의’를 사용하여 ‘손길’이라는 후행 명사와 연결함으로써 ‘어머니’를 강조하고자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담화 전체를 통해 상황 맥락과 같은 배경이나 담화 전체에서 드러나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조사 ‘의’가 사용되든 사용되지 않든 명제는 같으나 화자가 전달하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화자는 조사 ‘의’를 사용하여 선행 명사를 초

점화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조사 ‘의’가 후행 명사를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화자가 유표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 2) 화자의 상대적인 관점 표현

상황의미론에서 바라보는 언어적 의미는 화자의 심리적 의미를 연결시키고 있다. 심리적 의미(mental significance)를 중요시하여 이러한 개념을 이용하여 명제에 대한 태도(propositional attitude)를 설명하려 하였다.<sup>19</sup> 이 이론에서는 언어가 갖는 의미적 보편성으로서 관점의 상대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화자는 그들의 관점으로부터, 즉 그들이 처한 맥락적 환경으로부터 적절한 해석에 도달하려는 전략을 채택해야만 하는데, 이를 언어에 대한 관점의 상대성이라 하였다(Barwise & Perry, 1983: 39). 이를 ‘의’에 의한 명사구 관형 구성에서 역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화자의 논리적 견해를 전달하려는 담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1)에서 (ㄴ)은 명사구 관형 구성에서 N1 자리에 N2의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올 수도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어떤 명사가 올지는 화자가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논의가 되었듯이 N1에 N2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올 경우에는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올 경우보다 ‘의’의 생략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화자는 의도적으로 N1의 자리에 강조하고자 하는 명사를 두고 ‘의’를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건을 초점화하려 한다. (ㄴ)의 경우는 비단 통사적 구조만의

18 무표적인 표현과 유표적인 표현의 차이를 Levinson(2000: 136)의 M-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다. “화자가 유표적인 표현 M과 같은 의미 D를 지닌 무표적인 대안 U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유표적인 표현 M이 포함된 ‘p’를 말했다면, 무표적인 표현 U가 D의 보다 특정한 부분집합 d를 가리키지만 유표적 표현 M은 d의 여집합 d를 가리킬 것이다.”

19 이러한 까닭에 상황 의미론은 종래의 형식의미론과 화용론 및 심리적 의미론을 하나의 이론 체계 내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익환, 1986; 지인영, 1994).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겠다.

(3)

A: 그렇게 의견이 갈리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건 실컷 재개해 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긴 한 건지…….

B: 그런데 이번 6자 회담에서는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해결 의지는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북핵 문제의 당사자가 누구니까?[한반도포럼, 2013]

A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B는 문제 해결 보다는 누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즉 A의 발언과는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기 위해 ‘의’를 결합하여 초점화를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관점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 마치 주어의 위치에 행위주(Agent)를 둘 것인지 피동형으로 전환하여 대상(theme)을 둘 것인지가 화자가 전경화하고자 하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는 점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특정 사건에 대하여 기사화할 때 어떤 명사를 N1의 자리에 두었느냐를 살펴보면 사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에 대한 기사가 이슈가 된다면 ‘살인’이라는 명사 앞에 그 범인의 이름을 결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케네디 암살’ 사건에서 ‘암살’이라는 명사 앞에는 주로 ‘케네디의 암살’이나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처럼 목적어에 해당하는 ‘케네디’ 또는 ‘케네디 대통령’이 오는 반면, 주어에 해당하는 ‘오스왈드’는 ‘오스왈드의 암살’과 같은 어구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고 ‘대통령 암살’이란 구와 함께 등장한다.<sup>20</sup>

---

20 물론 ‘케네디 암살’과 같이 ‘의’가 생략된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중점을 두고자 하는 선행 명사를 ‘의’와 결합하여 제시하려 하는 필자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본다. 다만 여기에서는 ‘의’ 앞에 어떤 명사가 오느냐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의’가 생략된 경우가 많은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4)

- ㄱ. 케네디 암살 배후는 누구인가 영화 「JFK」(K-1 밤10시)소신 검사의 음모 추적 「존 F 케네디의 암살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어라」.[동아일보, 1995.02.27]
- ㄴ. 컴퓨터 전문가인 리처드 스프레그씨는 『컴퓨터와 오토메이션』誌 5월호에서 故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컴퓨터로 분석해 본 결과 각기 다른 방향에서……[매일경제, 1970.05.04]
- ㄷ. 故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은 오스왈드 단독 범행이 아니고 모종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파문을 던지고 있는……[동아일보, 1967.02.21]
- ㄹ. 한때 소련에 변절망명했었고 “쿠바를 위한 페어 플레이 위원회” 위원장인 당년 24세의 리 오스왈드가 22일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주범 혐의자로 체포되었다.[경향신문, 1963.11.23]
- ㅁ. 의사당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오스트레일리아 농민들의 피켓 가운데서는 그런 문구가 눈에 띄었다. 오스왈드는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의 암살범.[한겨레, 1992.01.05]

그런데 (5)에서와 같이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 앞에 무엇을 개혁하였는지에 대한 목적어보다는 주어에 해당하는 ‘고르바초프’가 비교적 많이 결합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에 대해 더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 ㄱ. 공산당 제2인자인 예고르 리가로프가 “글라스노스트의 도가 지나치다”며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비판하고 나섰다.[경향신문, 1987.10.01]
- ㄴ. 란스베르가스 사주디스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리투아니아 공화국주민들이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경향신문, 1990.01.11]
- ㄷ.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같은 온건노선의 로보프를 누르고 폴로스코프가 승리함으로써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파의 비판은 한층 고조될 것

로 보인다.[한겨레, 1990.06.24]

- 리. 독일 헬무트 콜 총리는 축출된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과 함께 고르바초프가 서방측과 맺은 조약을 준수하라고 소련 측에 촉구했다.[동아일보, 1991.08.20]

### 3)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 표현

문법이 맥락에 쓰임으로써 화자와 대상 또는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표현해 주기도 하는데 바로 거리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리감은 공손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수동태나 과거 시제를 선택함으로써 어떤 사건에 대하여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기도 한다.<sup>21</sup>

(1)에서 (ㄷ)은 주격이나 대격을 속격의 형태로 바꾸었을 때 의미의 변화가 있는 경우 화자가 의도한 것이다. 즉, 주격 또는 대격과 속격의 형태 차이는 표면적인 명제의 차이는 없으나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적 차이, 즉 심리적 거리감을 형성한다. Kuryłowicz는 문의 명사화는 대격과 주격 모두를 속격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대격과 주격이 속격으로 전환될 때 중화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Fillmore, 2003: 36-37).<sup>22</sup> 이 중화 현상은 통사적 차이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의미의 변화까지 발생시킬 것이다. 서정목(1982: 184-186)에서는 내포문에서 주격과 속격의 형태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주격은 현실 세계의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표현한 묘사적 진술이고 속격은 화자가 내면세계에서 관념화시켜 표현한 것이라고 주

21 문법을 통한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Batstone(1994)에서는 시간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 가정법상의 거리감으로 제시하였다. 과거나 미래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적 거리감을 표현하거나,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공손함을 나타내고 수동태를 사용하여 책임을 피함으로써 사회적 거리감을 표현을 할 수 있으며,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현재의 정신세계 밖에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거나, 가정법을 사용하여 가공된 비현실적 세계들을 표현하기도 한다(김지홍 역, 2003: 33-45).

22 Kuryłowicz는 주격과 대격의 관계가 능동문과 수동문의 관계보다 더 기본적인 구별을 반영한다는 문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언급된 부분이다.

장하였다. 따라서 속격에 [+관념화]라는 의미 자질을 부여하였다.<sup>23</sup> 여기에서는 문장의 명사화를 만들어 주는 '의'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내포문에 한정하지 않고 논의를 펼칠 것이다.

이봉창 의거를 보도한 신문에서 그 의미의 차이를 찾을 수 있다. 구나경(2013)에서는 이봉창 의거를 보도한 신문을 대상으로 비평적 담화분석 관점에서 의거 보도의 구조적 차원에서 헤드라인, 사건의 선택 및 배제, 명명하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사건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매일신보와 동아일보의 일제의 보도 통제에 자발적으로 순응하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의식의 식민지화에 기여하는 반면, 신한민보는 일제의 압박과 보도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여 애국적 행위로 의거를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형 보도 부분에서 주격이나 대격을 속격의 형태로 바꾸었을 때 의미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6)

매일신보(1932.10.11.2면): 대역범인 리봉창은 10일 오전 9시 2분 사형이 집행되었다.

동아일보(1932.10.11.2면): 대역범인 리봉창은 금10일 오전 9시 2분 사형을 집행하였다.

신한민보(1932.10.13.1면): 동경 10일 지난 1월 8일에 일황 유인계의 폭탄을 던진 한인 리봉창 의사의 사형을 집행하였는디(구나경, 2013: 86-87 재인용)

---

23 이동석(2009)에서는 속격이 원래는 기저에서 주격이었기 때문에 기저의 형태를 복원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구조상의 문제이지 의미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임흥빈(1998)에서 변형에 의해 '의'를 보았던 연구들을 비판하며 독자적인 심층적인 문제로 파악했던 관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의미의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담화 자료를 발견하거나 언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근거로서 들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미의 변화가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서 근거를 대신하고자 한다.

매일신보와 동아일보는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 반면에 신한민보는 ‘의’를 결합하여 ‘리봉창 의사’를 속격으로 만들어 주어 사건에 대하여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게 만듦으로써 ‘죄인에 대한 처벌’이라는 느낌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차이를 (7)을 통해 더 살펴보겠다.

(7)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3년 11월22일 미국 텍사스 댈러스 시내 중심가인 ‘딜리 플라자’를 무개차를 타고 통과하다 총에 맞아 암살당했다. 이후 미국은 리 하비 오스왈드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발표했으나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75%는 배후가 따로 있다는 음모설을 믿고 있다.

급기야 1979년 미국 하원 특별위는 오스왈드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배후조직이 존재하며 복수의 인원이 암살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원 특위는 당시 댈러스 경찰의 무전기에 녹음된 현장음에 미뤄볼 때 4발의 총알이 발사됐고 오스왈드 이외의 사람이 저격에 가담했다고 추론했다.

사바토 소장은 또 케네디 전 대통령이 건물 6층에서 발사된 오스왈드의 총알이 아니라 전방의 한 작은 언덕에서 발사된 또 다른 총알에 의해 절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쳤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그는 “전방에서 총알을 발사한 사람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암살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50년 전 케네디 암살 현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 않나”라며 “케네디의 암살을 둘러싼 진실을 찾는 노력은 전설의 엘도라도(남미의 아마존 강변에 있다고 상상된 황금향)를 찾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매일경제, 2013.10.15]

현장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거나(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당했다, 오스왈드가 단독으로 저지르다), 사실이라고 믿음으로써 현장과 같이 객관적

인 것처럼 나타내려 하는 명제(복수의 인원이 암살에 가담했다, 오스왈드 이외의 사람이 저격에 가담했다,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암살했다는 것)는 주어와 목적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표현한 데 비해,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거나(50년 전 케네디 암살 현장), 사실보다는 관념적인 명제(오스왈드의 단독범행, 케네디의 암살을 둘러싼 진실)에는 속격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는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하여 필자가 느끼는 심리와 표현하고 있는 대상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가까운 반면, 후자는 과거의 사실이거나 관념적인 명제이기 때문에 필자의 심리와 표현하고 있는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는 보다 멀다. 아마도 필자는 사건을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형태로 표현하면 현장감 있게 더 잘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필자의 생각이나 판단을 표현하는 데는 사건을 속격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간결하면서도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 결과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몇몇의 자료를 통해 주격이나 대격을 속격의 형태로 바꾸었을 때 의미의 변화가 있음(미미할지라도)을 확인하였으며, 이 역시 화자가 의도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당연한 것이다.

#### IV. 담화 전략으로서 ‘의’의 교육 방안

담화 전략으로서 ‘의’를 가르치는 것은 담화에서 ‘의’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담화 자료에서 ‘의’의 쓰임을 관찰함으로써 담화에서 ‘의’의 의미 기능이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서, 형태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들의 주의력을 끄는 과정<sup>24</sup>이다. 교사는 학습자가 ‘의’의 형

24 Schmidt(1990)에서는 주목하기가 입력을 수용(intake)으로 변환해 줄 필수조건이라 여겼다.

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밑줄을 긋거나 굵은 활자체 또는 다른 글꼴을 사용하거나 구별되는 색으로 표시한다.

밥을 푸는 순서도 정해져 있었다. 아버지 → 형 → 나 → 남동생의 순서로 남자들의 밥을 먼저 푸고, 그 다음 누나와 여동생의 밥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이었다. 결국 아버지 밥은 순백의 하얀 쌀밥이 되었고, 형과 나의 밥에는 보리가 조금 섞였고, 어머니의 밥에는 쌀이 거의 섞이지 않았다.[전인권, 남자의 탄생, 2003]

그런 다음 ‘의’가 담화에서 유효적으로 실현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조사들이 실현됨으로써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전략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교사: ‘아버지의 밥, 형의 밥, 어머니의 밥’은 ‘의’를 생략해서 ‘아버지 밥, 형 밥, 어머니 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그런데 ‘아버지의 밥, 형의 밥, 어머니의 밥’이라고 표현했을 때와 ‘아버지 밥, 형 밥, 어머니 밥’이라고 표현했을 때 글쓴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떻게 전달되는 것 같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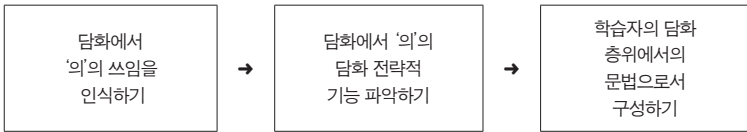
같지 않다면 어떻게 다를까?

‘소유주-피소유주’의 관계는 굳이 ‘의’를 쓰지 않아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필자가 ‘의’를 밝혀 씀으로써 ‘의’가 결합한 명사가 초점화되는 통사적 차원의 ‘의’의 의미 기능이 “식사 문화에서 남자의 밥과 여자의 차이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한국 특유의 가족 문화를 잘 나타내려 했다.”는 담화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데 작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활동은 보다 다양한 맥락이 주어진 담화를 통해서 ‘의’의 담화 전략

적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확장되고, 학습자의 문법으로서 구성하게 된다. 즉, 화자 또는 필자가 담화에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의’의 의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에 대한 담화 차원적 지식으로서 학습자가 머릿속에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나타내면 (8)과 같다.

(8) 담화 전략적 기능을 가진 ‘의’에 대한 교수·학습 단계



Bachman(1990)은 기존의 의사소통 능력 모델과 달리 언어적인 능력과 전략적인 능력을 구분하여 전략적인 능력(strategic competence)을 최종 발화를 생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층 강화된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전략적 능력은 상황 맥락 안에서 의미를 협상할 수 있게 하는 일반적인 추론 능력으로써 이해되는 것(McNamara, 2000: 23)이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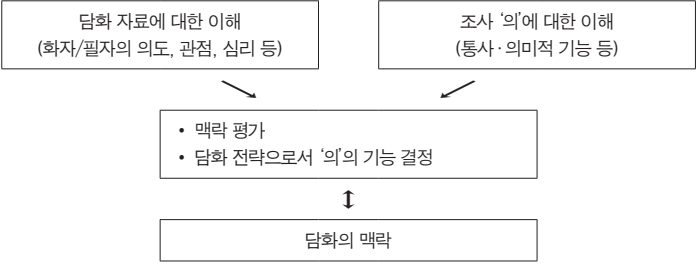
사실 전략적 능력의 개념을 두고 보면 어떤 맥락이 주어진 의사소통 상황이나 언어 능력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교육 내용으로서 설정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화자나 필자가 의사소통의 목적이나 상황에 적절한 언어 능력을 결정하기 위해 거친 과정들을 교수 학습 상황에서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담화 전략으로서 ‘의’를 교육하는 것은 실제 담화 자료를 대상으로 조사 ‘의’에 대한 문법 지식을 가르칠 때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쓰기

25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은 문법적(grammatical) 능력과 담화(textual) 능력을 포함하는 조직적(organizational) 능력과, 연표 내적(illocutionary) 능력과 사회언어학적(sociolinguistic) 능력을 아우르는 화용적(pragmatic)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전략적 능력은 언어 능력의 하위 요소들 간에 필요한 맥락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심리생리적인 기제(Psycho-physiological mechanisms)가 관여한다. 이러한 과정이 수반되는 의사소통의 모형은 Bachman(1990: 85)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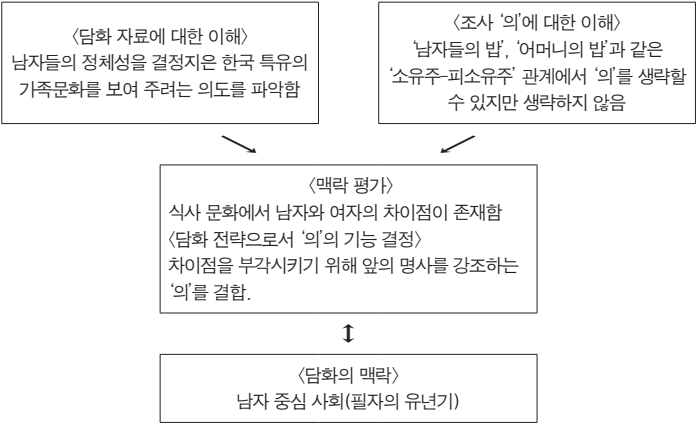
에서는 고쳐쓰기에서만뿐만 아니라 쓰기 과정 중 일어나는 ‘조정하기’에서 담화 전략으로서의 ‘의’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한다.<sup>26</sup>

학습을 통해 담화 전략으로서 ‘의’에 대한 문법은 (9)와 같이 구성되어 실제 접하는 담화 상황에서 작용할 것이다.<sup>27</sup>

(9) 담화 전략으로서 ‘의’ 사용 능력의 구성 요소



그리고 (9)를 위에서 제시한 글에 적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26 인지심리학에서의 자동적 주의, 자동적 처리와 비슷하다.

27 Bachman(1990: 85)의 ‘의사소통 언어 능력의 구성 요소’를 변형한 것이다.



## V. 맺음말

담화는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적인 의미구성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화자 또는 필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며 청자 또는 독자 역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화자나 필자가 전달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언어적인 능력은 화용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 능력 역시 중요하다. 그런데 문법적 능력은 모어 사용자라면 선천적으로 갖게 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문법적 능력이 문법 지식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길러지는 것도 아니다. 담화를 구성하는 데 문법 지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화자는 그 문법 지식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조사 ‘의’ 역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명제는 변함이 없는데도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기 위해 초점화하고 싶은 명사에 ‘의’를 결합하여 나타내기도 하며, 어떤 사실에 거리를 두거나 관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의’를 결합하여 속격의 형태로 전달하기도 한다.

이렇게 언어 사용자들이 전략적으로 ‘의’를 사용하는 과정을 문법 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문법 교육에서 문법 지식을 아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 지식을 깊이 있게 이해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며 학습자에게는 추상적인 수학 공식에 불과할 따름인 것이다.

\* 본 논문은 2014. 4. 30. 투고되었으며, 2014. 5. 5. 심사가 시작되어 2014. 5. 24.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 구나경(2013), “비평적 담화분석 관점에서 살펴본 일제강점기 의거보도 연구—이봉창 의거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제34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 63-101.
- 김광해(1981), “{-의}의 의미”,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국어국문학연구회논문집』 제11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pp. 1-66.
- 김기복(1997), “관형격 조사 ‘-의’의 연구”, 『어문연구』 제29권, 어문연구학회, pp. 61-75.
- 김기혁(1990), “관형 구성의 통어 현상과 의미 관계”, 『한글』 제209호, 한글학회, pp. 59-97.
- 김명희(1987), “{의}의 의미 기능”, 『언어』 제12권 제2호, 서울대학교 언어연구소, pp. 248-260.
- 김민수(1970), “국어의 격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49·50권, 국어국문학회, pp. 25-45.
- 김봉모(1979), “매김말의 변형 연구”, 『동아논총』 제16권 제1호, 동아대학교, pp. 61-86.
- 김영희(1973), “한국어의 격문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명완 · 박영목 · 권경안(1988), 『국어과 교육론』, 갑을출판사.
- 박호관(2001), “국어 속격 명사구와 {-의}의 의미”, 『우리말글』 제21집, 우리말글학회, pp. 25-48.
- 변정민(2008), “관형격 구성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제79호, 한국국어교육학회, pp. 523-546.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 서정목(1982), “15세기 국어 동명사 내포문의 주어의 격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53호, 진단학회, pp. 171-194.
- 서정수(1968), “국어의 기본구문과 명사구질의 생성문법적 분석”, 『어학연구』 제4권 제2호,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pp. 29-56.
- 성광수(1972), “국어 관형격 구성”, 『국어국문학』 제58·59·60권, pp. 217-235.
- \_\_\_\_\_(1999), 『격표현과 조사의 의미』, 월인.
- 신현숙(1997), “21세기 담화 의미 연구의 방향”, 『한국어 의미학』 제1권, 한국어의미학회, pp. 59-84.
- 이관규(1992), “격의 종류와 특성”, 『국어학연구백년사 1』, 일조각, pp. 243-256.
- \_\_\_\_\_(1999), “조사의 통사론적 연구”, 『국어의 격과 조사』, 월인, pp. 289-317.
- \_\_\_\_\_(2012), 『학교문법론(제3판)』, 도서출판 월인.
- 이남순(1998), “속격의 격표시”, 『격과 격표지』, 월인, pp. 63-97.
- 이동석(2009), “국어의 주어적 속격에 대한 연구”, 『언어학연구』 제15호, 한국중원언어학회, pp. 133-147.
- 이익환(1986), “Barwise, Jon and John Perry (1983), Situations and Attitude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Pp, 352+xxii”, 『언어』 제11권 제2호, 서울대학교 언어연구소, pp. 316-322.
- 임규홍(2007), “국어 담화분석 연구의 현황과 전망”, 『우리말연구』 제20집, 우리말학회, pp.

- 임흥빈(1998), “존재 전제와 속격표지 {-의}”, 『국어 문법의 심층 2』, 태학사, pp. 283-306.
- 전영옥(2009), “구어와 담화 연구”, 『한국어학』 제45호, 한국어학회, pp. 45-93.
- 정희자(1996), “영어 담화에서 담화전략과 어순변화”, 『담화와 인지』 제2권, 담화인지언어학회, pp. 21-45.
- \_\_\_\_\_(2008), 『담화와 문법』, 한국문화사.
- 지인영(1994), “상황의미론에서의 부정과 전제 분석”, 『언어』 제19권 제2호, 서울대학교 언어연구소, pp. 621-649.
- 천영록(1995), “기능, 전략, 능력의 개념 비교”, 『청람어문학』 제13권 제1호, 청람어문학회, pp. 316-330.
- 최경봉(1995), “국어 명사 관형구성의 의미결합 관계에 대한 고찰”, 『국어학』 제26집, 국어학회, pp. 33-58.
- 최호철(2011), “국어 발화의 의미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제36호, 한국어의미학회, pp. 481-529.
- 한정환(2012), “조사 ‘의’와 특성성”, 『한민족문화연구』 제40권, 한민족문화학회, pp. 39-72.
- 허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 Bachman, L. F.(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University Press.
- Barwise, J. & Perry, J.(1983), *Situations and Attitudes*, The MIT Press.
- Batstone, R.(1994), *Language Teaching: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김지홍 역(2003), 『문법』, 범문사.
- Fillmore, C. J.(2003), *Form and meaning in langua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inson, S. C.(2000), *Presumptive meanings: The theory of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MIT Press.
- Lyons, J.(1977),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Namara, T.(2000), *Language testing*, Oxford University Press; 강성우 · 박혜숙 · 고인성 역(2001), 『언어평가』, 박이정.
- Ramstedt, G. J.(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 Schmidt, R.(1990), “The role of consciousnes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pplied Linguistics* 11-2, pp. 129-158.
- Strawson, P. F.(1950), “On referring,” *Mind* 59-235, pp. 320-344.
- van Dijk, T. A. & Kintsch, W.(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Academic Press.

## 담화 전략으로서 조사 교육 연구

— ‘의’를 중심으로

양세희

본 연구는 문법 교육에서 조사 ‘의’를 담화 전략으로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의’에 의해 결합된 관형 구성의 유형들을 밝히는 것보다는, ‘의’에 대한 교육적 가치는 ‘의’를 담화 전략으로서 접근할 때 얻어지리라 본다.

따라서 ‘의’가 의미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에 주목하여, ‘의’가 담화 전략으로서 어떤 기능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화자는 조사 ‘의’를 사용하여 선행 명사를 초점화하여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하며, 의도적으로 N1의 자리에 강조하고자 하는 명사를 두고 ‘의’를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건을 초점화하고 사건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의’를 결합한 속격을 만들어 사건을 객관화하고 그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형성하기도 한다.

학습자는 담화에서 ‘의’의 쓰임을 인식하고, 문장에서의 ‘의’의 의미 기능이 담화에서 전략적 기능으로서 작용하는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담화 전략으로서 ‘의’에 대한 문법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핵심어 국어교육, 문법교육, 담화 전략, 조사 교육, 조사 ‘의’

## ABSTRACT

# Study on Education of Particle as Discourse Strategy

—Focused on ‘Ui’

Yang, Se-hui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how the particle ‘Ui’ can be educated as a discourse strategy in grammar education. An education value of ‘Ui’ may be understood by accessing to ‘Ui’ as a discourse strategy, rather than clarifying types of adnominal structure combined by ‘Ui’.

Therefore, it is examined what kinds of functions are included in ‘Ui’, as a discourse strategy, by focalizing the fact that ‘Ui’ has a semantic function. A speaker wants to effectively communicate his/her intentions by focusing on precedent noun through use of the particle ‘Ui’. And He/She focalizes a case and expresses his/her view on it by intentionally placing a noun to be emphasized on the position of N1 and explicitly revealing ‘Ui’. In addition, He/She also objectifies the case by making the genitive combined with ‘Ui’ and keeps a psychological distance away from it.

The learners recognize the use of ‘Ui’, and then they construct the knowledge of ‘Ui’ as discourse strategy by understanding a principle that the semantic function of ‘Ui’ in sentence works the strategic function in discourse.

**KEYWORDS** Korean Education, grammar education, discourse strategy, particles education, particle ‘Ui’